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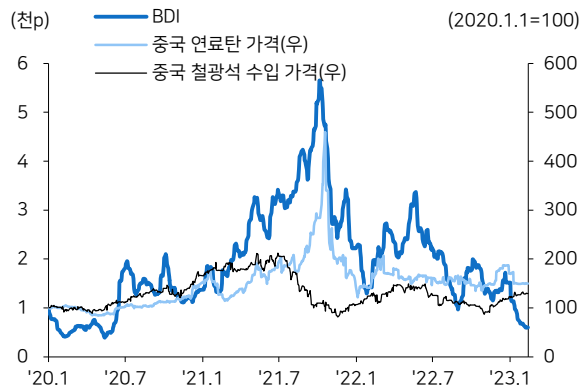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2. 13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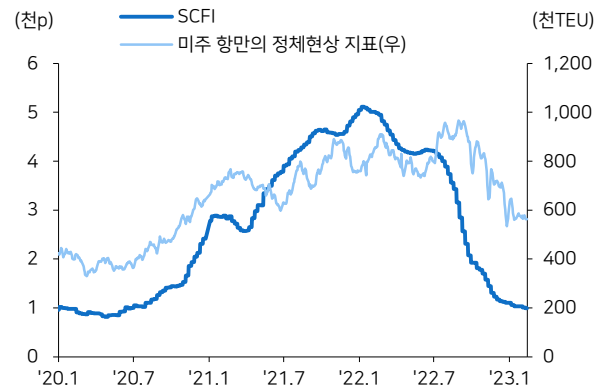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602.0p(+1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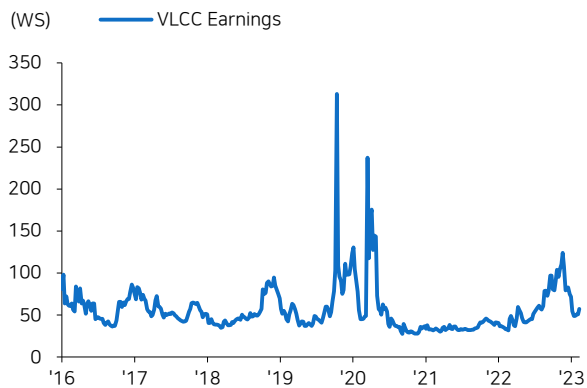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95.2p(-11.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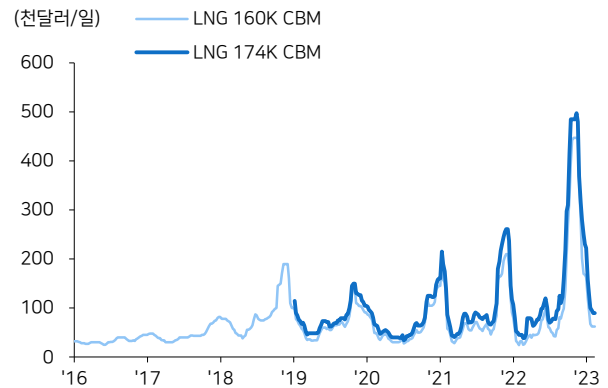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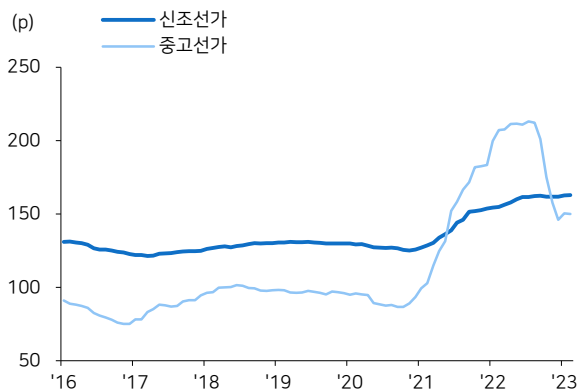
57.4p(+6.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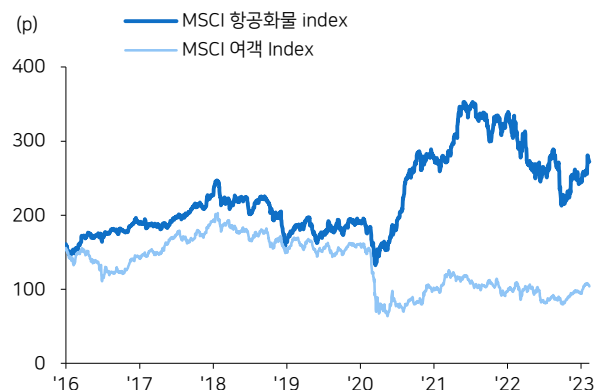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62.5p(+0.0p WoW)
90.0p(+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3.2p(+0.1p WoW)
150.0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72.3p(-0.9p DoD)
103.8p(-1.9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VLCC rates dip as Russia signals 5% crude output cut in March

최근 일주일간 eco-VLCC 운임이 20% 가량 상승했지만, 금요일(10일) 전일비 3.5% 하락했다고 보도됨. 용선주들이 계약을 늦추려고 했고,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맞서 3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500,000BPD씩 감산할 것으로 발표함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감산분은 기존 생산량의 약 5% 수준으로 언급됨. (Tradewinds)

VLCC rates dip as Russia signals 5% crude output cut in March

러시아 두마(하원)은 서방 제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산 원유가격을 할인하는데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됨. 브렌트유 대비 4월에는 34달러/배럴, 5월 31달러/배럴, 6월 28달러/배럴, 7월 25달러/배럴까지만 각각 낮게 책정한다는 내용임. 러시아 정부는 유럽연합의 금수와 그에 따른 적절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부재에 직면해 원유가격 설정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알려짐. (뉴시스)

VLCC rates dip as Russia signals 5% crude output cut in March

중국이 2025년부터 4년간 오만산 LNG 1MTPA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중국은 장기공급계약을 확보하려고 서두른 바 있다고 알려짐. 2022년 카타르와 27년간 4MTPA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두번째 계약으로 알려짐. (Upstream)

"CII는 불공평하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IMO의 탄소집약도지수(CII)를 불공평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도됨. 규정을 개정하기로한 2026년까지 과도기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선박이라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보도됨. 그리스선주연합(UGS)는 CII의 보완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알려짐. Trafigura는 운항선박의 연간효율(AER)이 아닌 에너지효율운항지수(EEI)로 기준을 삼아야한다고 주장함. UGS는 안전성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선박뉴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4개월만에 첫 블록 성공적 출항

2022년 10월 재가동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 후 첫 블록을 성공적으로 출항시켰다고 보도됨. 컨테이너선용 112톤급 블록 2개를 바지선에 실어 현대중공업 본사로 보냈다고 알려짐. 한편, 현대중공업은 2023년 약 10만톤의 블록을 생산해 1,800억원을 매출을 올릴 계획으로, 현재 500여명 규모의 생산인력도 1천여명까지 확대할 계획임. (코리아쉬핑가제트)

韓 중국인 단기비자 재개에 中 "우리도 규제해제 검토"

정부가 11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도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보복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됨. 비자 제한 조치는 한 차례 연장되어 2월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 COVID-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중국발 입국객들의 양성률도 낮게 유지됨에 따라 조기 해제가 결정됐다고 알려짐. 다만, 아직 양국 간 항공편 증편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고 언급됨. (서울신문)